



2024 설 명절 감사예배

목도 다함께
 사도신경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 다함께
 기도 말은이
 성경봉독 마태복음 7:24~27 / 인도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나누기 인도자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 다함께
 합심기도 우리 가족 감사와 기도제목 / 다함께
 마침기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 못 된 짐승 나를 헤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가족 감사와 기도제목"

새해엔
모든소망더
이루세요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 마태복음 7:24-27 / 인도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유명한 산상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건축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불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가 찾아올 때입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입니다. 이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버틸 수 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견딜 도리가 없습니다. 무너지고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비유 속에서 오늘의 가정들을 봅니다. 집이 아닌 가정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비바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동번개도 없고, 홍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 가정은 여기 저기에서 홍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장대비와 거센 비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견고히 설 수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이 흔들림 없이 비바람을 뚫고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견고한 터전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좀 어리석어 보여도 기초를 충실히 닦고 세운 가정입니다. 쉽게, 별다른 생각 없이 세워진 가정은 비바람을 견딜 수 없습니다. 태풍 앞에서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이 무엇입니까? 어느 기초 위에 세워야 우리의 가정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습니다. 반석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고, 지켜줍니다.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가정은 참으로 반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저기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정을 건지는 길, 가정이 나아가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가정이 다시 사는 길, 가정의 회복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반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불어온다해도 그것을 해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지시해 주십니다. 마치 운전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네비게이션이 상세히 안내해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견고한 반석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여 행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2024 설명절 감사예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 잠언 16:9 -

대한예수교장로회
두레교회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126 화성프라자 4층
(031) 553-6658